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펼·틈

연세대학교 제 17대 총여학생회

fenegyup@yonsei.ac.kr

www.yonsei.ac.kr/~ysfem

제8회 여성제

라퐁젤, 성을 탈출하다

: 일상을 뒤집는 여성의 주체적인 삶 살기

9월 13일(화) 여성, 섹슈얼리티의 주체가 되다

〈개막제〉라퐁젤, 더 이상 참지 않다 12시 중도 앞 광장
〈영화상영〉CQ2 (Seek You Too) 7시 상대 각당현
〈전시〉성을 탈출한 라퐁젤은 어디로 갔을까
13~15일 3일간 오전 11시 ~ 오후 5시 학생회관 3층 푸른샘

05. 09.13(화) - 09.15(목)

9월 14일(수) 여성, 일할 권리를 말하다

이주여성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카페 오전 11시 ~ 오후 5시 학생회관 3층 푸른샘
〈영화상영〉벵과 장미 7시 학관 앞 야외상영 (우천시 상대 각당현)

9월 15일(목) 주체적인 삶을 위한 힘주고 받기

라퐁젤, 파티를 열다 5시 반 논자당
참가신청 : 9월 9일까지 fenegyup@yonsei.ac.kr

8회 여성제 「라퐼젤, 성을 탈출하다」

- 일상을 뒤집는 여성의 주체적인 살살기 -



첫째날, 9월 13일 화요일 여성, 섹슈얼리티의 주체가 되다	둘째날, 9월 14일 수요일 여성, 일할 권리를 말하다	셋째날, 9월 15일 목요일 주체적인 삶을 위한 힘 주고받기
〈개막제〉 라퐼젤, 더 이상 참지 않다 12시~2시, 종도 앞 민주 광장	〈이주여성 자원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카페〉 11시~5시, 학생회관 푸른샘 ※수익금 전액은 이주여성노동자 지원사업에 쓰입니다.	
	〈간담회〉 ‘이주여성의 노동과 국제결혼’ 2시, 학생회관 푸른샘 ※간담회가 열리는 중에는 전시를 관람하실 수 없습니다.	
〈영화〉 「CQ2」 상영 7시, 상대 각당현	〈영화〉 「행과 장미」 상영 7시, 학생회관 앞 야외상영 (우천시 상대 각당현)	〈라퐼젤, 파티를 열다〉 5시 반, 논지당
〈전시〉 성을 탈출한 라퐼젤은 어디로 갔을까 11시~5시, 학생회관 3층 푸른샘		

여성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

1. 행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여성제 기념 배지를 드립니다.
2. 학내 곳곳에 숨겨진 빨간 라퐼젤로 묶인 이벤트 쪽지를 찾아주세요.
여성제 전시 기간 동안 푸른샘으로 쪽지를 가져오시면 여성제 기념품으로 특별제작한 머그컵을 드립니다.
3. 첫째날 개막제에 참가하시는 분들 중 선착순 20분께 라퐼젤 이야기를 배경으로 물라로이드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라퐁젤

성을 탈출하다

일상을 뒤집는 여성의 주체적인 삶 살기

출판: 김은사, 2009년

Q 여성의 주체적인 삶 살기, 일상을 뒤집다

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꾸린다는 것,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전복시키는 여성의 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일상을 뒤집는 여성의 주체적인 삶 살기'에 대한 고민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여성들은 자신의 삶의 계획을 꾸려나가면서 '여성'이라는 정체성에서 한 번쯤 더 고민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남성의 경험과 남성의 시선이 여성의 삶의 계획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새 모두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목소리를 넘어, 여성으로써 나의 경험과 시선이 살아있는 이야기를 터뜨리기 위해 나의 욕망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여성으로써 말하는 나 자신의 목소리에 따라 나의 일상을 뒤집는 것. 한 편으로는 박박하기도 하고 많은 고민이 뒤따르는 과정이지만,

한 편으로는 매우 즐거운 일임에 틀림없다. 이번 여성제에서는 동화 속 라퐁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성을 탈출하여 또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가는 라퐁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여성의 주체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서로 치밀하게 얽혀있는 두 가지 주제인 섹슈얼리티와 노동을 살펴보고, 둘째 날에는 특별히 이주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행사들을 꾸려보았다. 셋째 날에는 여성들의 네트워킹으로 힘을 주고 받는 작은 파티가 열릴 예정이다. 이제, 성을 탈출한 라퐁젤들의 유쾌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Q 라퐁젤, 스스로 성을 탈출하다

마녀의 욕심으로 늑대란 성 꼭대기에 갇혀 혼자 노래를 부르며 지내게 되어버린 라퐁젤. 그녀는 성이나 탑 안에 갇힌 동화 속의 많은 여성들과 함께 고립되고 제한된 자신의 삶을

슬퍼하며, 또는 침묵하며, 누군가 와서 자신을 구출해주기를 바라는 여성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라퐁젤은 그동안 기르고 또 길러 온 머리카락을 타고 스스로 성을 탈출한다. 성에서 탈출한 라퐁젤의 앞날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선택한 자신의 삶 앞에서 그녀에게 성 안의 작은 방만이 그녀의 자리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라퐁젤은 더 이상 성 안에 있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녀가 어디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부르고 누구와 함께든 원하는 관계맺기를 하기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Q 성을 탈출한 라퐁젤의 즐거운 상상

라퐁젤은 이제 자신이 머물 곳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녀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할 수도 있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할 수도 있다. 그녀는 혼자 살 것인지, 누군가와 함께 살 것인지, 함께 산다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녀가 자신의 노래로 생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합창단에 들어가거나 솔로 음반을 취입해야 할지도 모른다. 또는 장기간의 모발관리 경험을 살린 모발 관리사나, 높고 멋지지만 절대로 누군가를 가두지 않을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을 위해 성을 탈출하는 라퐁젤의 미래에 대한 즐거운 상상으로 그녀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성을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라퐁젤, 마치 자신을 구해줄 의무가 있는 것처럼 떠돌아대는 말 안 통하는 왕자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라퐁젤, 누군가를 가둔 모든 성을 함께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라퐁젤...그녀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여성, 섹슈얼리티의 주체가 되다

8회 여성제 - 라퐁젤, 성을 탈출하다

여성들의 성은 남성 판타지, 그 안에서 존재해야 하고 여성들 스스로의 입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가부장적 통념. 여성이 마치 아이를 낳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성을 몰아매는, 재생산에 관한 수많은 담론들. 이를 위해 마땅히 여성에게 주어지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시나리오, 이 모든 것을 걷어내고 온전히 여성의 입으로 '섹슈얼리티'를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어떻게 채워야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냥 온전히 내가 원하는 것, 그들의 틀에 갇혀 선택하지 않는 것. 나의 섹슈얼리티, 이것은 나의 생각이며 나의 계획이고 나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저 지금까지 그들이 감히 해왔던 나의 이야기를 온전히 내가 하는 나의 이야기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서 여성들이 좀 더 쉽게 그녀들의 섹슈얼리티를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여성, 섹슈얼리티의 주체가 되어 마음껏 이야기하고 마음껏 삶을 살아나간다.



출처: 김춘지 자라는 땅

영화상영

CQ2 (Seek You Too)
7시, 상대 각당헌

제 7회 여성영화제 상영작

감독: 캐롤 로 Carole Laure

출연: Danielle Hubbard, 장-마르 바,
Mireille Thibault

캐나다/ 2004/ 100분/ 35mm/ 드라마



첫 페 날, 화 요 일

9
13

개막제 라퐁젤, 더 이상 참지 않다
12시 중도 앞 민주광장

라퐁젤은 그 동안 많이 참았다. 잘 몰라서 그랬을 지도,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가부장적 논리가 너무 그럴싸해서일지도, 혹은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였을 지도 모른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라퐁젤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라퐁젤은 성을 불태우고 부수어버리고 성에서 탈출했다! 무너진 성을 뒤로 유유자적 기념사진도 찍어본다.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광장 한가운데서 평소 그들이 지켰던 말에 딱딱 칼날도 꽃아본다. 자, 탈출했고 처치했고, 이제 즉우장창한 라퐁젤의 삶이 남았다. 나의 이런 모험담을 담아, 다른 여성들도 힘을 낼 수 있게 음반을 취입해볼까? 꿈에 부른다. 그 꿈을 예쁜 색지에 써서 빨랫줄에 널어본다. 햇빛을 가득히 머금고 무럭무럭 자라나 현실로 이루어지는 꿈이 되길.

Review

몸에 새겨지는 것만큼 강렬한 기억은 없다. 하지만 몸에 새겨지는 기억들은 결코 명쾌하지 않다. 아슬아슬 잡히지 않는 느낌과 감정만이 떠다닌다. 그것은 매우 뜨겁고 매우 응집되어 있으며 매우 모호하다. CQ2는 온통 몸으로 말을 하고 있다. 17살 소녀, 라셀의 성장기를 따라가며 그녀가 터뜨리는 몸의 언어와 그녀가 경험하는 몸의 기억들을 보여준다.

라셀에게 삶은 고통으로 다가온다. 소통할 수 없는 엄마와의 관계, 엄마의 새 남편과의 미묘한 갈등,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은 라셀에게 어떠한 믿음도 주지 않는다. 그녀는 다만 춤을 춘다. 그녀를 둘러싼 관계들, 언어들에 부딪혀 더 이상 소통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분출하지 못할 때, 라셀은 그것들을 몸으로 뿜어낸다.

가출한 라셀은 김옥에서 출옥한 잔느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현대 무용가인 잔느는 그녀의 삶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킨다. 라셀은 잔느와 함께 살면서 잔느의 삶의 모습들을 본다. 그녀의 춤을 보고, 그녀의 성적인 경험들을 본다.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행위의 동기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행동하는데 어색함이 없는 잔느를 보며, 라셀은 불신과 반항, 고통의 항변으로 주었던 춤에서 매우 강한 삶의 열정을 느낀다. 라셀은 자신 안의 거친 열정을 다스려 가고, 자신 안의 힘과 느낌을 분출하는 몸짓으로서 춤을 춘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라셀이 경험하는 성적인 부분도 녹아들어간다. 하지만 그것이 라셀의 성적인 욕망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라셀은 그것을 폭력으로 경험하는 순간을 겪게 되고, 그 장면은 영화에서 가장 보기 힘들고 불편한 장면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다음 장면에 나오는 라셀의 춤동작을 보면서 나는 몸을 떨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몸에 차례차례 각인되는 경험들, 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차원의 경험들. 그것들이 하나의 몸속에 통합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그녀는 살아 있어서 그렇게 몸짓하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조리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몸이기도 했고, 나의 몸이기도 했다.

감독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을 신문에 낳던 사건들을 소재로 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이 영화의 픽션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실재하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그것들을 지적하고 해석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다만, 라셀과 잔느, 잔느가 김옥에서 만났던 오델, 그리고 라셀의 엄마 등,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관계 사이에 어떤 감정들이 흐르고, 그 감정들이 각 여성들을 변화시켜내는지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by - 고래



여성, 일할 권리를 말하다

우리 엄마는 슈퍼우먼이다. 집 밖에서 하는 일이 있고, 또 당연히 집 안에서 하는 일이 있다. 하지만 엄마가 집 안과 바깥에서 하는 일은 비슷하다. 그리고 엄마의 월급은 아빠 월급의 1/3이다. 가끔 엄마가 늦게 들어오실 때, 아빠는 어떻게 말하곤 했다. "가정 있는 여자가 돈 벌겠다고 나가봤자 얼마나 벌어나, 늦게나 들어오고, 그냥 집에서 놀아."

일하는 여성은 언제든, 어디에든 있어 왔다. 여성들은 과거에도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 또한 집 안에서, 그리고 집 밖에서도 일하고 있다. 예전엔 집 안에서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두 공간을 넘나들며 일을 한다. 다만, 집 밖에서 일을 하더라도 집 안에서의 일을 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슈퍼우먼'의 역할을 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여성이 하는 일들이 존중받았던 적은 없었다. 아니, 여성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의 우리 아빠처럼 말이다.

여성에게 일할 권리는 주어져 있지 않다.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여성들이 사회 진출도 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예전에 비해서일 뿐이다. 지금도 어떤 여성이든, 직업을 막론하고 집 안의 일에서 자유롭기는 힘들다. 또한 이제까지 구축되어온 남성들의 끈끈한 사회 관계망 속에 편입되는 것도 참으로 힘들다. 그 관계망 속에서 사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 남성의 경험으로 형성되어왔기 때문이다. (이성간의)결혼과 임신, 그리고 육아의 문제만을 보아도 그렇다. 이 과정들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고 욕망하는 삶의 모습들이며, 실제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로부터 많은 보호와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여성의 임신은 생애주기 안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존중되어야 할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여성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여성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결혼을

감소와 저출산, 그리고 이혼을 증가에 대한 책임은 여성에게 향해있고, 이에 대한 정책으로 제시되는 것은 '건강가정기본법' 따위의 것들 뿐이다. 결혼·임신·육아의 문제 외에도, 여성이 직장 생활과 집 안에서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일단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 이 사회에서 경제력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총체적인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한다. 하지만 그 결정을 통제하기에는 여성에게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도 많다. 여기저기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났으니까," 라는 말로 여성의 일할 권리가 보장된 양 호들갑을 떨어내고 있지만, 아직도 여성은 집 안과 바깥 사이에서 수많은 고만을 떠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조리한 기존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의, 여성의 일할 권리를 말한다. 이번 제 8회 여성제의 둘째 날 행사들은 이러한 여성의 일할 권리에 대한 목소리들을 담고 있다. 특히 자본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 곳곳으로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자본과 함께 이동하는 (이동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주여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은 매우 많으며, 그 문제들을 접근해나가는 방향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녀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본의 세계화 속에서 여성의 일할 권리가 어떠한 억압관계 속에서 박탈당하고 위치 지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목소리들을 내어야 하는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 어느 이주여성노동자의 외침

"엄마 돈 많이 벌어들게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이 시어머니에 맡기고
고향을 떠난 날, 물기도 많이 물었습니다.
코리아 드림을 안고 한국에 내리던 날
아무진 꿈을 꾸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한국에 오느라 진 빚 갚고
돈을 모아 고향에 돌아가야지."

한국에 와서 한 달 되었을 때
꿈이 멀어졌습니다.
매일 14시간 일했는데 한 달 받은 월급 40만원
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니라 그렇대네요.

어머니 아프니 돈 보내라는 전화 받던 날,
가진 돈 털탈 털어 집에 부치고
잡히면 추방당할 걸 일면서 작업장을 이탈했습니다.
...(중략)...

공장장이 몸을 더듬는다며 울먹이는 미얀마 아가씨,
한국어를 몰라 뽕줄을 감기약안줄 알고 마신 방글라데시 아줌마,
장시간 힘들게 일해 아기가 유산되었다는 태국 친구,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에 눈물 흘리는 네팔친구,
사장이 월급을 몇 달째 안준다며 걱정하는 저취직 친구,
허리를 다치고도 일을 해 디스크가 되고,
병원비가 없어 치료도 못하는 우즈베키스탄 아주머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일을 했습니다.

햇빛도 안 드는 지하방에 실어
아끼고 또 아껴 빚진 브로커 비용을 감았습니다.
다달이 번 월급 중에 반은 고향에 부치고
반은 모아서 뭉 돈들 마련해
고향에 돌아가면 장사를 해야지 계획했지만,

→ 뒷면8p에 계속

월 패 날, 수 요 일

9
14

이주여성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 카페 오전 11시 ~ 오후 5시, 학생회관 푸른샘

11시 ~ 2시, 4시 ~ 5시: 이주 여성 운동을 위한 수익 사업
네팔 액세서리/ 방글라데시 옷 액세서리 /이주 여성노동자 라디
카의 비즈 공예품)

작은 대안 무역은 이주 여성들이 제작한 장신구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운동에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
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 역시 네팔, 방글라데시 여성 노동자들에
게 전달되며 여러분들께 예쁜 장신구를 살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이주 여성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고민거리를 나눌 수 있는 자리
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이 방문해주세요!

간담회

이주 여성들의 노동과 국제결혼 2시, 학생회관 푸른샘

2시~4시: 간담회 "이주 여성들의 노동과
국제결혼"

초청: 소하네(이주 여성 활동가), 마숨(이주
노동조합)

술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시와 판
매 행사가 중단됩니다.

9월 14일

둘째날, 수요일



8회 여성제 - 라퐁젤, 성을 탈출하다

집수리한다, 아이 아프다, 시동생 장기간 돈 보내라...
피담 흘러 번 돈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버리고
헛개비 같은 몸 위에 찬바람만 휘휘 돌아칩니다.

고용허가제가 시작되면서
불법채류자 단속에 일자리가 없네요.
...(중략)

불법채류자는 나가라네요.
차라리 고향에 가버릴까?
오랜 세월 떨어져 아이가 나를 기억할까?
남편은 나를 반길까? 염려되는데
고향에 돌아간 친구 말이 돌아와도 일할 곳 없으니,
차라리 힘들어도 여기서 버티라네요.
반가운 것도 두 달, 가지고 간 돈은 다 떨어지니
"밖에 나가 돈 벌어오라" 식구들 눈치법에
또다시 다른 나라로 이주노동을 떠난다고요.
식구들 생계 때문에 일하고 돌아와도
정착 못한 채 또 떠나야 하는 끝없는 여성의 이주.
누가,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까요?

- 사진집 '꿈의 나라에서, 가운데 이주여성안면센터 한국영남의 글입니다.

● 한국에서 3D업종에 종사하면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현재 고용허가제의 악법과 여전히 존재하는 산업 연수생 제도의 폐해 속에서 더욱 고통 받고 있다. 이주 여성 노동자는 불법 채류자라는 명예와 단속 추방, 사업장 이동 금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폭력 등 이주 노동자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와 더불어 여성이라는 성계급적 위치 때문에 더욱 중첩된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와의 임금차별은 물론이고, 성희롱, 강간 등 성폭력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생리 휴가 및 출산, 육아 휴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건강권에 치명적인 해를 입고 있다. 또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생산직 외에도 성 산업에 강제로 유입되거나 성 산업의 일환인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더욱 더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주 여성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국제 매매혼이다. 열악한 경제적 조건으로 낯선 땅으로 떠나야 하는 여성들은 노동자가 되는 것 보다 한국 남성들과의 결혼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며 매우 안정된 길이라는 허위 광고에 의해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상당수의 기혼 이주 여성들은 일상적인 아내 폭력과 성적 학대, 인격 모독, 임신/출산/육아에 있어 자원의 절대 부족, 결혼

빵과 장미 (Bread And Roses)

7사 학생회관 앞 야외상영
(우천시 상대 각당헌)

감독: 케네스 로치

출연: Pilar Padilla, 에드리아 브로디, 엘피디아 칼리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스위스 / 2000 / 110분 / 드라마

영화상영



Review

'We want BREAD but ROSES too'. Bread는 생계를 의미하며, Roses는 인권을 상징한다. 그들은 지금까지 어느 한 쪽을 얻기 위해 다른 쪽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 영화는 고달픈 이주 노동자 여성들의 현실과 주인공 마야의 당찬 모습을 그리면서, 보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가져다준다.

이주노동자 여성들은 타국에서 일을 하며 자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한다. 인종차별 앞에서 필사적으로 일을 해도 월급은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끊임없이 고용주의 눈치를 보며 해고당하지는 않을까 가슴 졸이고 지낸다.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이 막연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는 권력 앞에서 성상남은 하나의 생존도구였고, 삶을 향한 그녀의 몸부림을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아무리 인권이 '천부'적 권리라고 불리며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天付'되지 않는다. 마야는 인권을 되찾기 위해 경찰의 압박, 고용주의 횡포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동료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열성적으로 노동운동을 전개했다. 극복하기에 너무나 큰 장벽이지만, 그대로 방치한다면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그대로 해결되지 않는 채 남아있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을 얻고자 자신의 생계수단을 걸고 투쟁했던 마야는 결국 자국으로 쫓겨 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

by - 다들

III

주체적인 삶을 위한 힘주고 받기

8회 여성제 - 라퐁젤, 성을 탈출하다

셋째날, 목요일

9
15

여성들의 네트워킹 : 고민하며 만나지만, 만날수록 즐거운.

'여성들의 모임'을 떠올려본다. 사실 모이는 이들의 성별에 따라 모임의 성격이 달라지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특정 모임의 성격이란 건 모임에 속한 구성원들의 목표와 취향, 사고의 유연성, 말하는 방식, 듣는 방식 등이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모임'은 매우 주목을 받으며, 때로는 모임의 특정한 성격을 표현하는 몇 개의 형용사로 표현된다. 이것은 아마 '여성'이라는 존재에 형용사를 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탓일 것이다. 여성들만의 모임이 여성을 스스로 편협함에 가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비현실성과 오만함에 깜짝 놀라곤 한다. 여성에게 온갖 대표 형용사를 붙이고 특정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남성 사회의 특성이다. 편협함은 다른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곳곳에 스며들다 못해 넘쳐나는 남성의 경험에 묻혀버린 여성의 목소리를 여성들의 모임에서 꺼내는 것을 편협함으로 보는 시각이야말로 편협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학내의 여학생 모임 역시 이런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무작정 '성별에 관련 없이 다 함께 모여야 한다.'는 주장은 여성들을 더욱 답답하게만 할 뿐이다. '여학생

라퐁젤 파티를 열다

5시 30분, 논지당

〈라퐁젤 파티를 열다〉는 여학생 소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혹은 여학생 소모임을 준비중인 분들, 혹은 여학생 소모임에 관심이 있는 분들, 혹은 어쩔지 기존 모임들에서 활동하기가 딱딱한 분들, 혹은 모임이란 모임은 죄다 싫은 분들, 그리고 편한 분위기에서 여자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즐거운 분들, 마지막으로 어느 것에도 해당 사항이 없지만 여성제를 함께 즐기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작은 파티입니다. 작은 파티에 어울릴 법한 소담스러운 음식들과 소란스럽지 않은 이야기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생기 넘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라는 이유로 모이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거의 모든 공동체에서 - 현실화되는 횟수는 적더라도 - 여성구성원들끼리 '차라도 한 잔 하자'라는 약속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들의 네트워킹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는, 결국 매우 단순하게도 '거의 모든 공동체'가 여성에게 편안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공동체 내 대립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하고(싸움을 말리지는 못할지언정 싸우는 건 안 될 말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공동 식사와 요리나 설거지를 해야 하고(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미안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드러내는 것을 말리지는 않지만 그 이후의 낙인은 알아서 감수해야 한다는 것) 등등. 참으로 익숙한 이야기들이 아닐 수 없다.

여성이 이러한 편견들을 '남성중심성'으로 명명하는 것조차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남성들이 편히 존재하는 공동체에서, 여성들끼리의 모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다. 남성중심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밤늦은 술자리나 포르노그래피, 농구공 하나로 쉽게 이루어지는 '남성들만의 모임' (그 자리에 여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자리는 '남성만의 모임'이 되어버린다.)이 '우린 여성을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는 말 한 마디로 '모두의 모임'이 되어버린다. 반면 대학의 과/반 내 여학생 모임부터 어머니들

의 등산모임까지 여성들의 모임은 끝도 없이 '너희끼리 모여서 뭐하냐'는 질문 아닌 질문을 듣게 된다. (정말 뭘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다고 보든, 뭘 하든 인정할 수 없고 보나마나 할 일도 없이 시간을 낭비할테니 그만두라는 언설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모임을 따로 만드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필요성에 대한 확신도 없고, 모여서 무얼 할까에 대한 고민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모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은 혼자 끙끙 앓기 보다는 모여야 길이 보이고, 모여야 힘이 나니까.

어떤 여성들은 정기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러 다니고, 어떤 여성들은 여성들끼리의 여행을 떠난다. 어떤 여성들은 여성학을 공부하고, 어떤 여성들은 함께 돈을 모으고 자립 계획을 세운다. 여성들의 모임이니까 더 분위기가 부드러울까? 더 꼼꼼한 진행이 가능할까? 더 수다스러울까? 그건 알 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 그건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붙인 말이 아니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뒷취워졌던 온갖 말들을 흥분분하게 벗어버릴 수 있는 모임, 같은 몸을 가지고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 그런 모임을 만들어보자. 나의 경험과 감정을 믿고, 내가 나누고픈 이야기를 기꺼이 꺼내면서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찾아보자. 잊을 수 없는 유쾌하고 속 시원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야기 주제들과

8회 여성제 - 라문절, 성을 말하다

9
셋째날, 목요일
15

★ 선택주제

1. 어,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 - 이성애적인 연애 각본, 그리고 다른 상상력
어,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 연애 시작한 친구들에게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으세요? 아니면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으세요? 우리, 연애에 대해 이야기 해 봐요. 이제 연애 얘기 지긋지긋하네요? 아니면 해도 해도 재미나나요? 연애 얘기, 왜 지긋지긋한 걸까요? 아니면 왜 끝도 없이 재미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긋지긋하지 않은 연애 얘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남들도 다 그런 편하고 구질구질한 연애 얘기,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 나 하나만 경험했을 것 같은 유쾌한 연애 얘기를, 그것도 아니면 도대체 연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왜 여기서까지 이런 얘길 또 해야 하고, 들어야 하는데? 하는 이야기들도, 모두모두 여기서 이야기 해 봐요.

2. 난 말야, 날개 달린 하얀 말을 타고 밤하늘을 나는 꿈을 꿔 - 나의 성적 판타지
"난 말야, 날개 달린 하얀 말을 타고 밤하늘을 나는 꿈을 꿔, 그리고 초생달 위에 앉아서 차가운 와인을 마시지. 후에 별들 사이에 누워서 보라색 하늘을 보며 심호흡을 해. 그건 정말이지 달콤하고도 청결한 기분이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게 나의 판타지. 나의 꿈. 아무에게도 이해 받지 못할 성에 대한, 그리고 섹스에 대한 나의 상상." 엘토당토 않은 이야기죠? 그래도 한 번만 같이 이야기 해 봐요. 왜 그렇게들 꿈꿨는지 궁금하기만 했던, 그리고 소문만 무성했던, 그렇지만 투정을 열어보니 황량한 빈 들판이었던 성에 관한 이야기. 그건 어쩌면, 너무도 무성한, 그렇지만 일관된 소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또 우리의 상상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야기 해 봐요, 상상 속의 만개한 꽃밭, 나의 성적 판타지.

그 소개글

☆ 공통 주제: 너를 볼 때면 날 보는 것 같아

당신은 이 자리에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오셨나요? 그리고 어쩌서 여학생 소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나요? 편하니까? 즐거우니까? 아니면 좀 더 비장한 목적으로? 아니면, 다른 곳에는 있고 싶지 않았거나 있고 싶었지만 내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 해 봐요, 함께 있어서 즐거웠던 이야기, 또 조금은 어둡고 불편할지도 모르지만 말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 이야기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너무 쉽게,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은 사람을 만날지도 몰라요.



3. 너언, 꿈이 뭐야? - 나의 삶의 계획

여성으로 살아가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뭘 하든 말입니다. 취업을 하든 계속 학교에 다니든 무엇을 해도, 무엇을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나 많은 여성들이 계속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하지요. 내 삶은 내가 이끌어 가는 것이 맞지만, 그리고 그렇든 아니든 책임은 내가 지게 되기에 더더욱 내가 이끌어 가게 되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막연할 때, 혹은 너무 희망에 넘칠 때. 나는 과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아니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할까? 하고 싶은 일 운운할 나이는 이미 지난 것 아닐까? 끝 없이 밀려오는 불안한 의문들을 잠시 감춰 두고 옆 사람에게 살짝 물어 봐요, "너언, 꿈이 뭐니?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니?"

4. 오늘은 뭐하고 놀까? - 여자 친구들, 모이먼?

어디든 마주 앉아서 이야기만 해도 두세 시간이 후딱 가 버리는 신나는 여자 친구들과의 모임, 하지만 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있다면 더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서로 이야기 해 봐요, 무엇을 하면서 한 없이 편안했는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 웃었는지. 아니면 어느 카페의 케이크가 맛있었는지, 어디 가면 폭신한 소파에 앉아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죽을 먹을 수 있는지, 어디 가면 책을 읽으면서 졸음까지

할 수 있는지. 여자 친구와 함께 해서 더 좋았던 시간들, 장소들, 놀이들, 여기서 함께 나눠 봐요.

5. 나도 가끔 잊어버려요, 내 몸,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나요? - 나를 성적대상화하는 시선 거부하기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생각이 났죠, 그리고 보니 나는 한 번도 나의 몸을 제대로 바라 본 적이 없어. 만져 본 적도 없고, 그건, 왜? 어쩌지 부끄러우니까. 새삼스럽기도 하고, 그건 또, 왜? 그건, 그건 아마도 내가 내 몸을 성적(性的)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걸 내 몸인데, 내가 원할 때는 성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열심히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내 몸인데, 나조차도 내 몸을 성적으로밖에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치량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화도 나서, 눈물이 났어요. 그 날 저는 처음으로 제 몸을 구성구석 열심히 바라보고 쓰다듬어 주었죠. 아주 아주 적극적인 대응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제 나름의, 저를 성적 대상화하는 시선에 대한 맨처음의 거부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 나누어 보고 싶어요. 더 작은 이야기, 더 큰 이야기, 더 소심한 이야기, 더 적극적인 이야기, 그리고 더 즐거운 이야기들을요.

소개글 by - 몽

성을 탈출한 라퐁젤은 어디로 갔을까?

13일~15일 오전 11시~오후 5시,
학생회관 푸름샘

※ 이 전시는 짧은 단편과 애니메이션 작품들,
Question Box, 거울방, 소리방, 책아트등의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공간에 대한 여성의 상상력을 펼쳐보려 합니다.
일상적인 경험을 통한 여성의 고민과 상상력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퐁젤은 자기가 탑에 갇혀 있는 사실을 몰랐다. 그것을 알고 싶은 욕구로 인해 그녀는 고통스러웠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나는 왜 여기 있어야 하는 것일까.

라퐁젤은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는다. 처음 들어보는 음색이다. 그것은 정말 새로운 음색이었다. 마녀도 그녀와 목소리가 달랐지만, 지금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는 차원이 다르다. 라퐁젤은 궁금하다. 그녀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라퐁젤은 머리카락을 내려준다. 어떤 사람이 올라온다. 그 사람은 생김새도 다르다. 뭔가 크다. 몸집도 크고 얼굴도 크고, 목소리도 크다. 그리고 머리는 매우 짧다. 사람은 사람인데, 뭔가 '다른' 사람 같다. 그 때 처음으로 그녀는 마녀와 동질감을 느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곳 저곳을 아무렇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거지. 나는 이 탑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라퐁젤은 혼란스럽다. 그리고 그 혼란은 가중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 저 짧은 머리의 몸집이 큰 사람과 내가 무엇이 다른 걸까. 왜 나는 이곳에만 머물러 있어야 할까.

그 때, 라퐁젤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탑에 갇혀있는 내 모습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다. 라퐁젤은 문제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자신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꿈꾼다.

.....
성을 탈출한 라퐁젤은 어디로 갔을까?

그녀가 탑에 갇혀있는 것과 그녀가 여성이라는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인 것일까.

여성이, 라퐁젤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 도대체 성을 탈출한 라퐁젤은 어디로 갔을까?

라퐁젤이 꿈꾸었던 변화를 어떻게 맞이하고 이루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다

라퐁젤은 머리카락을 내려준다.
어떤 사람이 올라온다.
그 사람은 생김새도 다르다. 뭔가 크다.
몸집도 크고 얼굴도 크고,
목소리도 크다.
그리고 머리는 매우 짧다.
사람은 사람인데,
뭔가 '다른' 사람 같다.
그 때 처음으로 그녀는
마녀와 동질감을 느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곳 저곳을 아무렇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거지.
나는 이 탑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라퐁젤은 혼란스럽다.

니면서 마주했을 공간들을 상상해본다.

그녀 안의 다양한 모습들을 비추는 거울 앞에 서보진 않았을지.

그녀에게 주어진 않았던 언어들이 불현듯 다가와 말을 걸지는 않았을지.

라퐁젤이 아닌 그녀가 원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진 않았을지.

그리고 또 다른 라퐁젤들을 만나지는 않았을지...

다만, 그렇게 그녀가 지나가는 공간들이 다음과 같지 않기를 바란다. - 기존의 공간에 가.까.스.로, 편입해 들어가야 하거나, 혹은 그것을 포기해야 하거나.

그리고 그녀가 자신안의 여성을 사랑하기를 바란다. - 거부와 창조, 다소 거창하게 생각될지도 모르는 이 행위들을 행복하게 하며 살아가기를.

여성제를 함께 준비한 사람들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열광 울·말·행
17대 총여성학회

고려 (교육02)

들레 (사회00)

별 (도시공학03)

초성 (사학03)

기획단

김동윤 (이학계열 05)

김은희 (사회학과 00)

다름 (경영학과 04)

몽 (사회학과 03)

바야늘 (국어문학과 02)

샘 (천문우주학과 03)

식초 (신학과 03)

아무도 (사회학과 04)

아이세 (사회학과 04)

울무팡콩 (컴퓨터공학과 02)

양아영 (이학계열 05)

이나래 (인문계열 05)

이지영 (문헌정보학과 03)

초원 (인문계열 04)

토닥 (영어영문학과 04)

